

## 7 부: 직원의 교육

공중 보건은 공중 보건 직원이 언어 접근 과정에서 각자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숙지하고 비영어권 및 LEP 사용자를 위한 포용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공중 보건은 교육 기회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모범 사례, 새로운 기술, 직원 및 지역사회로부터의 피드백 등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
### 언어 접근성 교육

이 계획이 실행되면 직원은 계획의 핵심 사항에 대한 사본과 교육을 받게 됩니다. 해당 자료는 다른 정책 및 계획과 함께 공중보건 인트라넷에도 명시될 것입니다. 이 내용은 모든 신규 직원과 자원봉사자에게 입사 시 제공되며, 관련 계획이 변경될 경우 교육 자료도 함께 업데이트됩니다.

언어 접근성 및 언어 정의에 대한 기초 교육도 현재 개발 중이며, 2025년 가을에 공중 보건 인력을 대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. 교육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:

- 언어 접근에 관한 법적 요건 및 규정(예: 1964년 미국 민권법 제6장)
- 언어 접근 및 언어 정의의 정의 및 그의의
- 의미 있는 접근을 제공하기 위한 정의 및 역할
- 모범 사례

### 암묵적 편견 교육

공중 보건은 모든 직원이 채용 후 90일 이내에 ‘암묵적 편견 및 문화적 역량’ 교육을 이수하도록 요구합니다. 교육과정은 암묵적 편견과 문화적 역량의 기본 개념을 소개합니다. 또한 학습자가 암묵적 편견 완화와 문화적 역량 향상을 위해 개별화된 개발 계획을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기술을 제공합니다.

### 기타 관련 교육

공중 보건국은 수시로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직원의 문화적 역량과 다양한 지역사회(커뮤니티)와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 프로그램을 더불어 제공합니다. 다음은 몇 가지 예시입니다:

- 영향을 위한 계획 수립: [성장하는 지역사회](#)가 제공하는 지역사회 참여 원칙과 전략을 적용하는 방법: 논의 내용에는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, 장벽을 극복하는 전략, 공감 중심의 사고방식을 개발하여 회복력 있는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방법이 포함되었습니다. 이 교육은 반인종차별, 문화적 겸손(cultural humility), 트라우마 인식에 기반해 지역사회 참여 전략을 수립했습니다.

## 로스엔젤레스 카운티 공중 보건국 (공중 보건국) 언어 접근성 계획

- [루모스 트랜스폼](#)에서 제공하는 트라우마 정보 기반 회복탄력성 지향(eTIRO) 구현: 참가자는 트라우마 정보 기반 회복탄력성 지향(eTIRO)에 대해 배우고 이런 접근법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구체화된 회복 탄력성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. 참가자는 자기 자신과 타인의 스트레스, 긴장 이완 효과를 식별, 추적, 조정할 수 있는 실용적인 기술을 학습했습니다.
- [Translatin@Coalition](#)가 제공하는 문화 변화 교육. 교육 세션은 다음과 같은 주제에 대한 인식과 모범 사례를 포함합니다: 성적 지향, 성 정체성 및 표현, 성적 특성(SOGIESC) 101, 포용적 언어 및 대명사, 법적 보호 및 정책, 제도적 차별 및 암묵적 편견, TGI(트랜스젠더, 성별 확장, 간성)의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, 문화적 겸손 등입니다.

### 자원 및 기술 지원:

- 자료 접근: 가이드라인, 일반 용어집, 통번역 업체의 연락처 정보를 포함한 각종 자료를 부서 인트라넷에 저장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기술 지원: 공중 보건국의 언어 협평성 팀은 지속적인 지원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며 직원이 현장에서 직면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.